

청년
디자인리빙랩

창원산단

창원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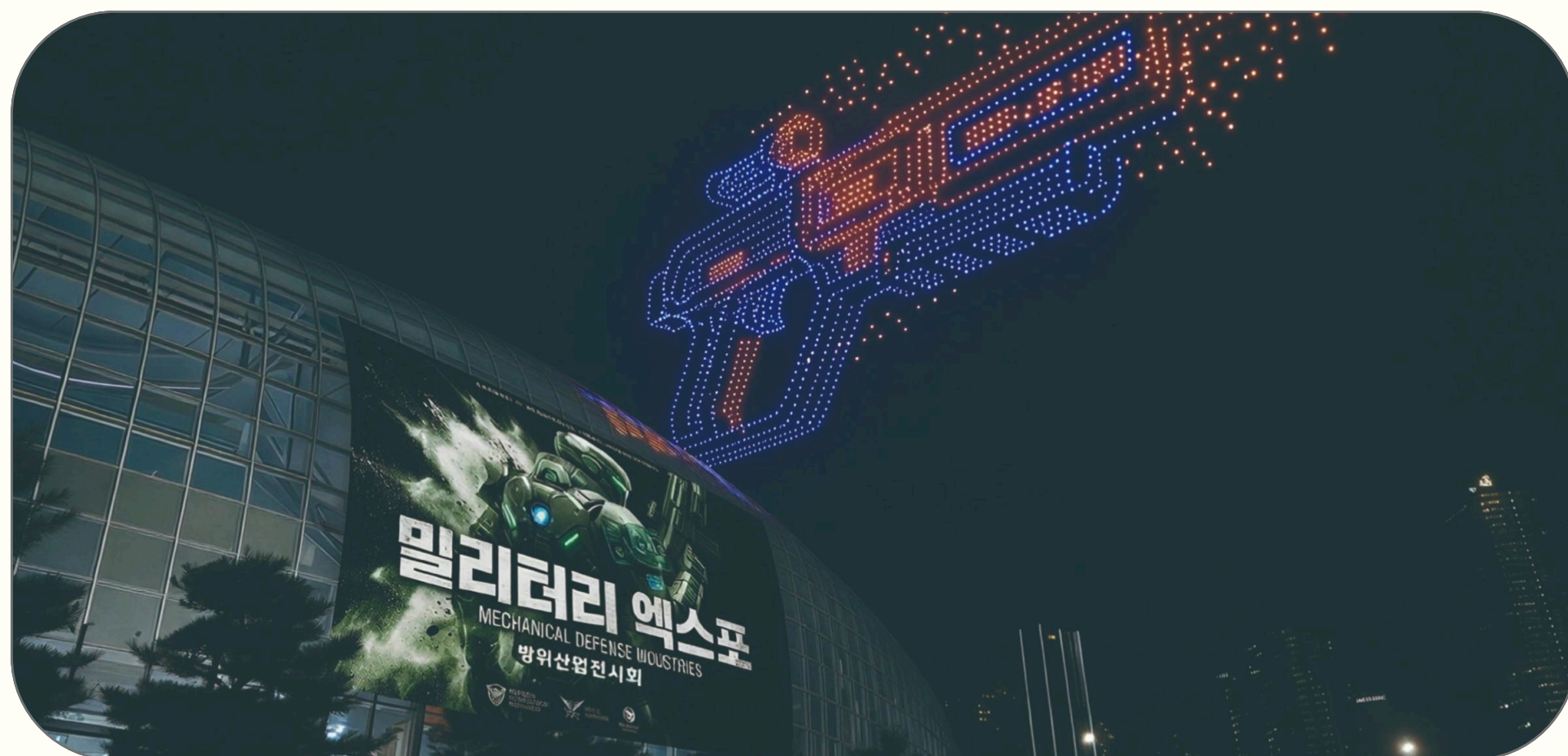
창원의 자랑 기계방산 콘셉트 무기 대전

창원의 기계 방산을 시민참여형 컨셉 무기 대전으로
콘텐츠화해, 창원만의 자랑스러운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게 만드는 산업 X 문화 콘텐츠

#기계방산의문화콘텐츠화

#밀리터리덕후성지

#시민참여페스티벌



아이디어 요약

추진 배경과 목표

창원은 국내 최대 기계·방산 산업지 이지만 시민에게는 딱딱한 이미지로 인식돼 산단 매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B2B 중심 구조로 시민·청년이 즐길 문화형 콘텐츠가 부족해 산업 정체성이 일상에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산업 자산을 예술·체험형 콘텐츠로 재해석해 '문화 방산'으로 전환하고, 창원산단의 기술·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하고자 합니다.

시나리오



창원에서 열리는 무기 대전에
오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사람들이 다양한 코스튬을
입고 사진 찍으며 재미있게
활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산학연계 프로젝트 관련
무기 소개 팝업에서 창의적인
전시를 관람한다.



웹툰/게임 기획자의 스토리
구상 혹은 관련 강의를 듣는다.



3D 모델링으로 디자인된 무기를
이용하여 VR 체험을 한다.



건물 안 부스 구경을 마치고 나와
드론 쇼를 구경하며 창원의
기계 방산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낀다.

주요 내용

청년·시민이 참여하는 창작 무기 공모전과 산학 협력 디자인 프로젝트를 운영해 창원산단의 기계·방산 산업을 문화·창작 콘텐츠로 확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차년도에는 공모전·전시로 기반을 만들고, 2차년도에는 VR·3D 체험 전시를 거쳐 3차년도에는 상설 체험 전시와 국제 포럼 개최로 창원 산단 브랜드를 완성합니다.

기대효과

AS-IS

연구, 부품, 장비 등 기술 중심으로 운영된
방위산업 전시.



TO-BE

산업 기술을 체험 콘텐츠로 재해석해 시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 중심 방산으로 전환.

창원산단

산단 내 10분 거리 마이크로 틈새 문화 Zone

직장 내 짧은 여가시간을 활용해
음악, 예술, 체험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노동자 행복과 지역 예술인 상생을 실현하는 문화공간

#점심시간10분

#퇴근후소확행

#스트레스순삭



아이디어 요약

추진 배경과 목표

창원산단 노동자들은 짧은 여가시간과 이동 제약으로 문화·휴식 경험이 부족하며, 단조로운 공장·도로 환경은 정서 환기와 활력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이로 인해 문화활동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일상 속 문화 접근성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은 틈에도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이크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시나리오



산단 점심시간이 되면 남천 길로 산책을 나온다. 딱히 할 것은 없지만 잠깐이라도 걷기 위해 남천 길로 향한다.



남천 길을 지나가다 보니 속도 측정기가 있어서, 커피 내기를 다 같이 짧은 시간에 즐긴다.



다음 날에는 농구 골대로 다른 내기를 하자고 약속한다.



좀 더 걷다 보니 시민들도 바글한 프리마켓이 진행 중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흥겨운 음악도 들린다. 잠깐 앉아서 기분 전환한다.

주요 내용

산단 노동자가 점심·퇴근 직후 참여할 수 있는 짧은 문화·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미니 공연·체험 콘텐츠 등 감정 환기 콘텐츠와 달리기·미니 농구 등 가벼운 운동을 결합 합니다. 짧은 틈새 시간에도 활력과 휴식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즉시 참여형 ZONE입니다.

기대효과

AS-IS

짧은 여가시간과 단조로운 산단 환경 때문에 문화·예술 경험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TO-BE

산단 내에서 짧은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문화·체험 활동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환경 조성.

창원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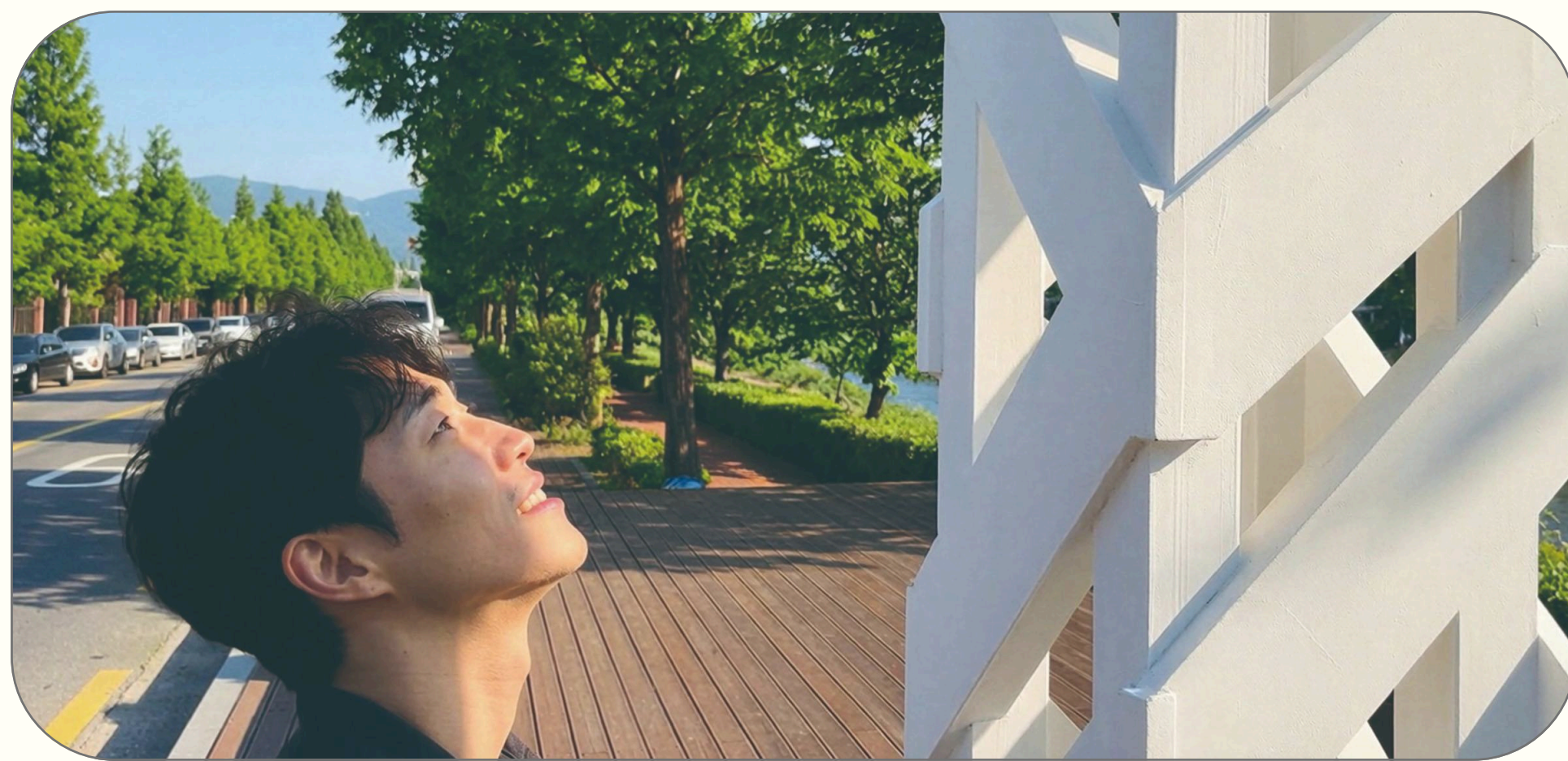
창원산단의 유산과 정체성 Art+Tech 디자인 시그니처

산단의 건물벽과 유휴공간에 디자인 설치물을
반복적 배치, 빛과 그림자가 시간에 따라 변하며
창원의 산업·역사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조형물

#빛그림자설치물

#산업유산예술변환

#산단시그니처



아이디어 요약

추진 배경과 목표

창원은 국제적 조각가의 도시임에도 산업 중심 이미지가 강해
일상에서 예술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산단의 벽면·유휴공간이
예술적 상징으로 활용되지 못해 조형물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산업 경관을 기술·예술 디자인으로 전환하고 주요 거점에 조형물을
도입해 일상의 문화 경험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나리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의 시그
니처 조형물을 구경하러
주말에 방문한다.



걷다가 00기업의 방산 전문 기업을
나타내는 독특한 시그니처를
발견하여 인증샷을 찍는다.



서로 사진을 찍어주다 보니
창원 국가산단을 한 바퀴를 돌았다.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는 아이와
커플들이 시그니처 조형요소를 직접
쌓고 사진도 찍으며 놀고 있다.



시그니처로 제작된 산단의
디자인이 돋보여 구경하는 재미가
더해진다.



창원 기념품으로 시그니처
모양의 키링을 구매한다.

주요 내용

창원의 예술 자산을 재해석한 시그니처 아트워크를 산단 곳곳에
도입합니다. 기업 가치와 연계한 공공 조형물 설치 및 산단 경관
조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합니다.

기대효과

AS-IS

산단은 시각적 상징이 부족하고
산업·폐쇄적 이미지가 강해 시민 접근성과
매력도가 낮음.



TO-BE

산단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시간대별 예술공간을
조성해, 시민이 찾고 기록하는 문화·예술
공존의 장소로 인식.

창원산단

내 이름의 나무 분양 창원 반려 가로수 Zone

창원산단의 가로수에 나의 이름을, 우리 가족이
가꾸는 반려 나무로 만드는 창원산단

#가로수입양

#애착공간형성

#시민참여조경



아이디어 요약

추진 배경과 목표

창원산단은 노동자가 머무르지 않는 이동 중심 공간으로 인식되며, 문화·휴식 경험 부족으로 시민과 노동자 모두에게 닫힌 산업지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삭막한 출퇴근길과 경관을 일상 속 활력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정서적 애착을 느낄 수 있는 문화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팀 단위로 반려 나무 zone을 분양해 산단을 참여 기반의 '문화적 애착 공간'으로 전환합니다.

시나리오



지나가다 '반려가로수 입양하실래요?' 포스터를 발견하고 아들 생일 선물로 결정한다.



나무 한 그루를 아들 이름으로 분양받기 위해 사연을 신청한다.



나무 분양에 당첨되어 나무 한 그루 앞에 아들 이름이 새겨진 표지판을 구경한다.



가족들과 다 같이 분양받은 나무에 옷을 입히고 물 주고 가꾸며 다양한 활동을 즐긴다.



창원시민들도 가로수를 지나 다니며 QR을 통해 분양받은 가족의 영상과 사연에 대해 공감을 표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그냥 가로수였지만 지금은 더욱 애정이 가는 가로수로 변화한 것 같다.

주요 내용

산단 가족 사연 등을 공모해 가로수와 매칭하고 임명식을 진행하며, 남천 길을 중심으로 체험·교육 기반의 가로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시즌별 반려 가로수 행사를 통해 시민 참여를 지속시키고 산단 공간에 애착을 형성하는 문화를 확산합니다.

기대효과

AS-IS

단조로운 산업 경관과 부족한 문화·휴식 경험으로 산단을 머무르지 않는 닫힌 공간으로 인식.



TO-BE

가족과 함께 가꾸고 즐기며 추억을 쌓는 참여형 문화거리로 산단을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전환.

창원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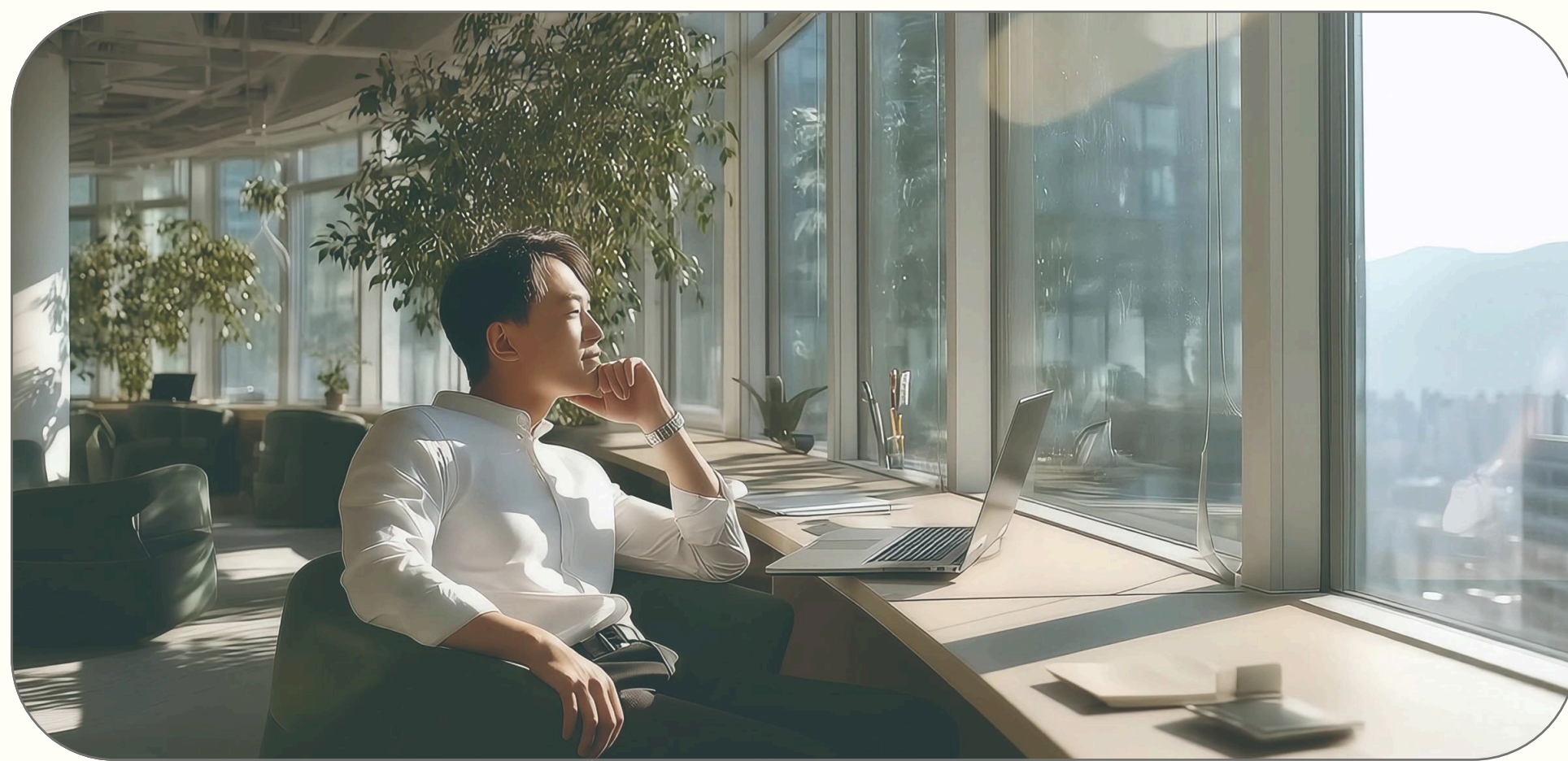
자연환경 속 업무활력 창원 녹지 위케이션

삭막한 산단 환경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몰입과
집중을 통해 업무 효율과 활력을 높이는 위케이션

#몰입형자연워크스페이스

#스마트근로문화

#업무활력충전



아이디어 요약

추진 배경과 목표

창원산단은 일 중심의 단조로운 근무 문화로 활력이 부족하고, 풍부한 녹지 자원을 일상 경험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산단의 자연 속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할 새로운 위케이션 환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녹지 경관을 활용한 몰입형 워크스페이스를 조성해 업무 효율과 웰빙을 높이는 스마트 근로 문화를 확산합니다.

시나리오



지루한 산단을 벗어나 활력을 얻기 위해 녹지 위케이션을 예약하며 출근 중이다.



산단에서 위케이션 센터까지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니 부담이 없다.



오늘은 창원의 풀숲에서 일하는 느낌을 받고 싶어 숲과 나무 전경이 좋은 위케이션에 왔다.



다른 산단 직원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인다.



준비물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서 좋다. 미리 예약만 하면 업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키트를 사용하면 된다.



이제 퇴근시간에 맞춰 집으로 가기 전에 위케이션에서 지원하는 저녁 문화활동을 잠깐 하고 가려 한다.

주요 내용

위케이션 센터를 운영하며 준비 단계에서는 웰컴 키트 제공과 좌석 예약, 이동 지원 등을 통해 위케이션 참여를 돕습니다. 업무 단계에서는 자연 경관을 바라보며 몰입할 수 있는 '뷰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휴식·네트워킹 단계에서는 웰니스 활동, 로컬 투어, 야간 프로그램 등 일상의 활력을 높이는 경험을 지원합니다.

기대효과

AS-IS

삭막한 공장지대, 단조로운 일상으로 활력 부족.



TO-BE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몰입할 수 있는 예약제 사무실 운영으로 활력 근로문화 확산.

창원산단

산단 기숙사 커뮤니티 청년살롱

산단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상 속 활력과 관계를 회복하는 생활 밀착형
자치 커뮤니티

#기숙사커뮤니티

#슬기로운산단라이프

#도시·산단연결



아이디어 요약

추진 배경과 목표

산단 청년들은 회사-집 중심 생활로 교류와 문화 커뮤니티가 부족해
일상 활력이 낮습니다. 기숙사와 주변 환경이 단순 거주에 머물러
관계 형성과 정주 만족도 향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청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기숙사 기반 플랫폼으로
확장해 지속 가능한 청년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나리오



1 퇴근 무렵 기업 기숙사와 아파트가
모여 있는 거리로 사람들이
들어온다.



2 기숙사에 도착하면 집안에서
쉬는 것 밖에 없던
기숙사 생활이 지루해질 무렵,



3 기숙사 건물 내부 게시판에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공지된 것을 확인한다.



4 출근 전 새벽에는 다 같이
러닝을 하였고,



5 퇴근 후에는 e-sport 기숙사
대항전을 펼친다.



주요 내용

기대효과

AS-IS

기숙사 생활이 회사-집 반복으로 단조롭고,
외부 청년들과 자연스러운 교류 기회가 거의 없음.



TO-BE

기숙사가 만남·연결의 플랫폼으로 확장되어
청년들의 정주 의지와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교류 기회가 편하고 안전하게 제공.

창원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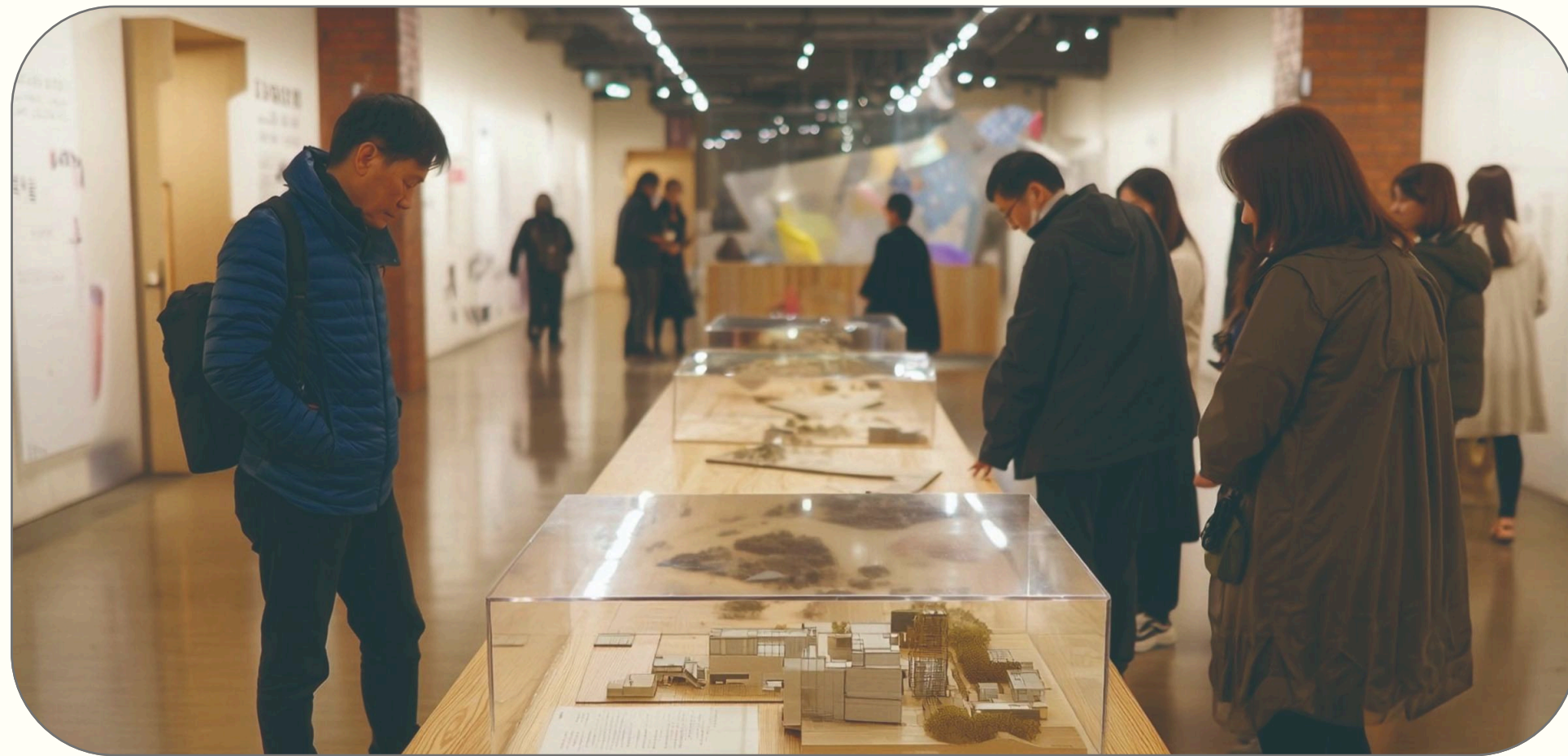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청년 공유공간 프로그램

센터를 열린 실험실·책방·카페·전시공간으로
만들어 산단과 시민이 교류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점

#청년열린거점

#창작·기획실험

#로컬문화활성화



아이디어 요약

추진 배경과 목표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기획·실험하며 시민과 교류할 자율적 문화 플랫폼이 부족해 일상 속 문화 경험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 중심 구조와 이동 피로, 공유공간 부족으로 문화 향유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참여할 열린 실험 기반이 요구됩니다. 청년 주도의 공유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일상형 문화 실험을 확산하고, 산단-도시 간 지속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나리오



창원에서 출퇴근 외에 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문화활동을 직접 기획하는 경험을 가지고 싶다.



산단 퇴근 후 언제나 열려있는 센터에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진다.



매번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류도 하고 센터 내에 전시와 다양한 문화 활동을 다 같이 기획하는 시간도 가진다.



센터 내에 부담 없이 전시 가능한 공간을 통해 이번에 기획한 '우리 집 강아지 사진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나의 독서 리스트를 공유하는 공유 큐레이션 책방을 통해서도 문화활동 기획이 가능하다.



일뿐만 아닌 나의 생활에 생기를 불어 넣어줄 다른 이유가 있기에 퇴근 후의 시간이 계속 기다려진다.

주요 내용

청년이 보낸 사진·이야기를 큐레이션 해 월별로 전시하는 '창원 대로 展', 청년이 제안한 주제로 산단 노동자와 시민이 대화하는 소규모 커뮤니티 '창원 대로 TALK', 청년 추천·기부 도서로 구성된 공유 책방을 운영하는 '창원 대로 BOOK'으로 구성된 참여형 로컬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기대효과

AS-IS

일 중심의 단절된 근로 문화 속에서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실험할 안전한 플랫폼이 없고, 문화 참여도 획일적.



TO-BE

청년의 시도와 교류가 일상화되고,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열린 커뮤니티 기반의 자율적 문화 생태계로 전환.

창원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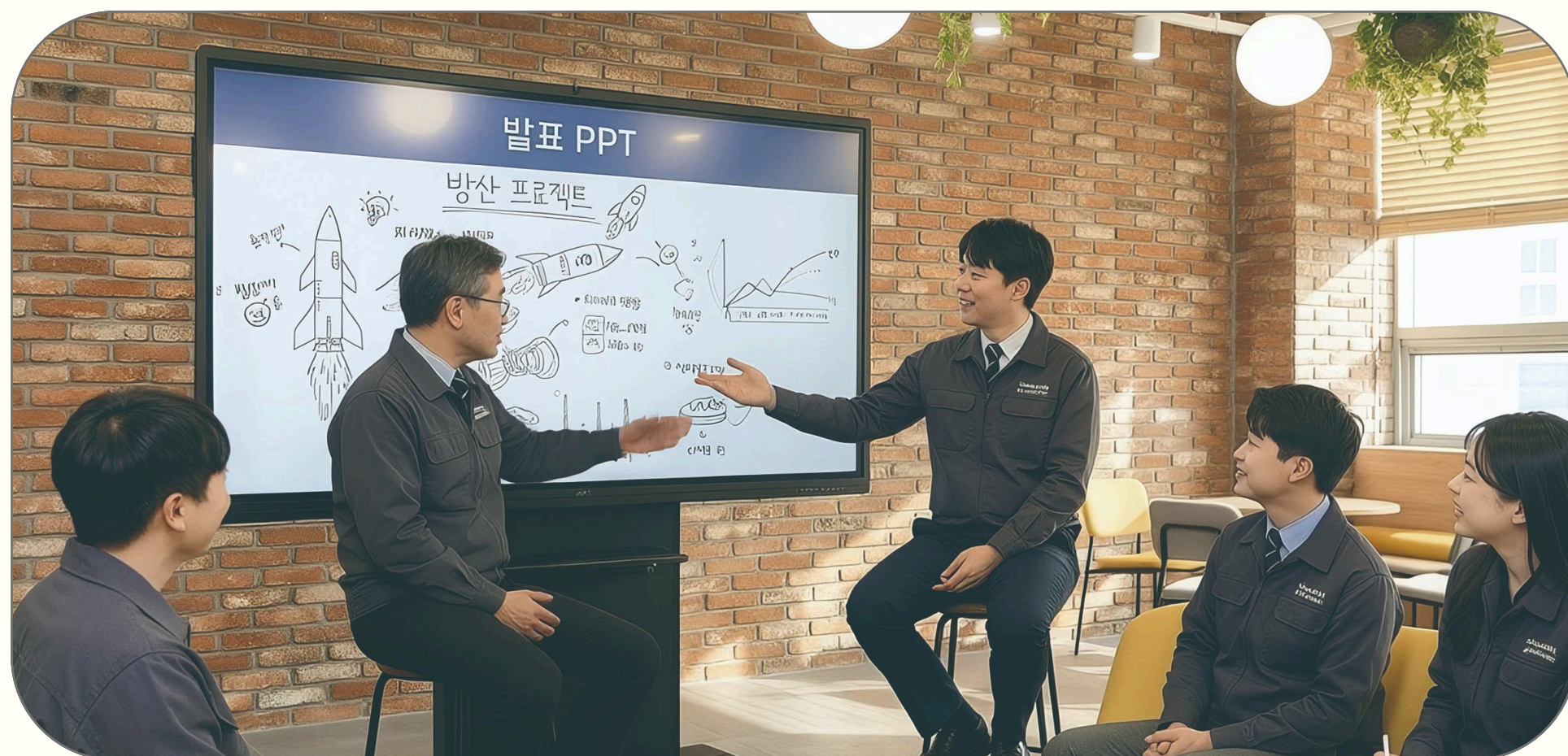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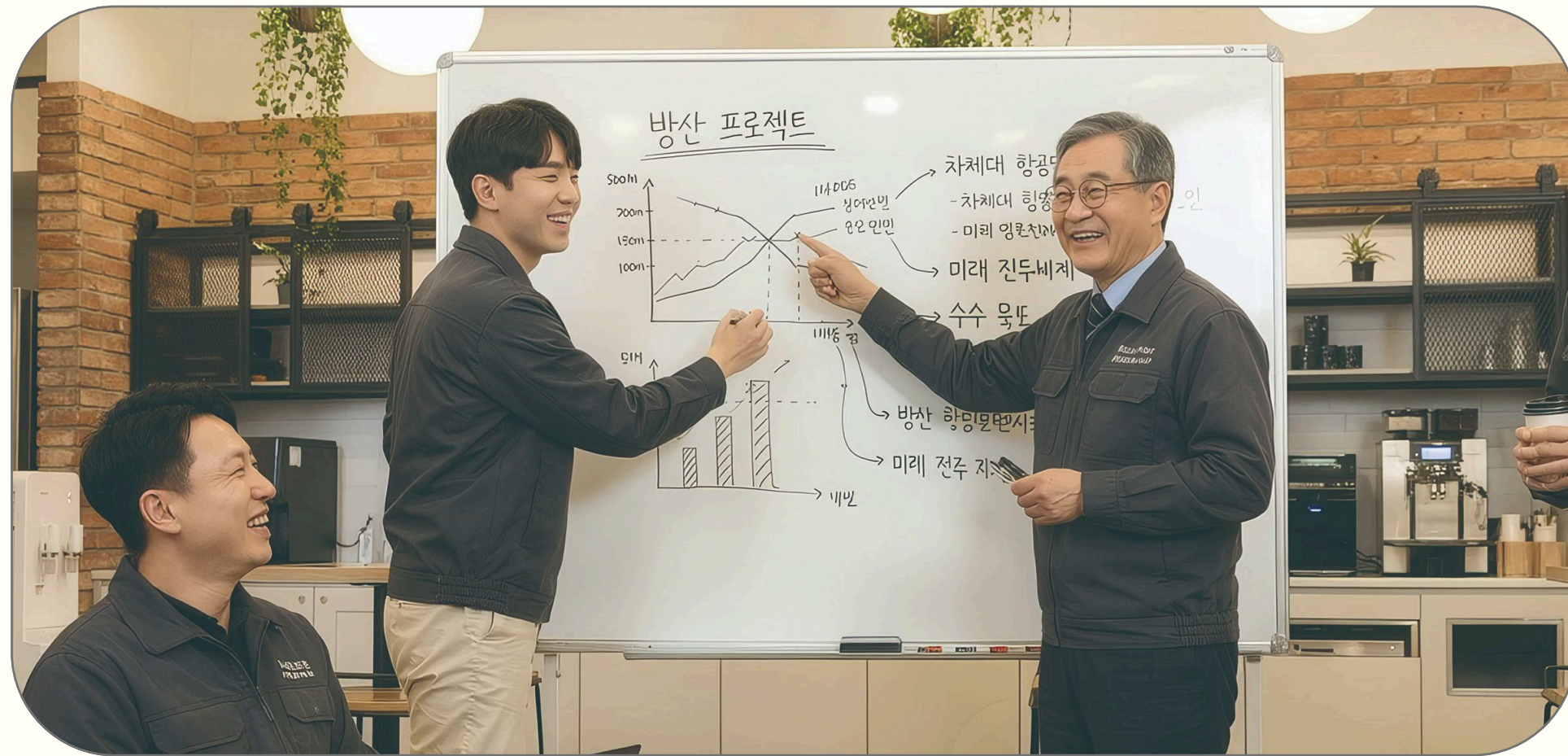
지식 공유 프로그램 커리어 커넥티드 멘토링

산단 내 노동자들이 각자의 직무 지식과
실무 경험을 나누고 경력 개발을 촉진하며
성장하는 실무 멘토링 프로그램

#지식크로스멘토링

#세대연결

#산단연대강화



아이디어 요약

추진 배경과 목표

창원산단은 노동자의 기술·경험이 개인에만 머무르고 조직·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해 커리어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교류와 지식 전수 구조가 부족해 실무 지식이 공유되지 않는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지식·경험을 체계적으로 연결·공유해 커리어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나리오



산단에서 일하면서 커리어가 정체된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만 배우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산단 내 멘토 멘티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원하는 분야의 멘토로 매칭 신청을 한다.



멘토와 같이 커피챗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 최종 매칭이 된다.



멘토와 매칭이 된 후 같이 사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멘토와 멘티의 역할을 바꿔서 요즘 문화, 다양한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가르쳐 주며 서로를 보완해 준다.



완료된 사이트 프로젝트를 연말 합동 발표를 통해 공유하고 산단 네트워킹 파티를 진행하며 커리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한다.

주요 내용

시니어 노동자를 모아 멘토 풀을 구축하고 표준화된 가이드로 멘토링 운영 체계를 마련합니다. 청년 노동자가 관심 분야에 맞춰 멘토를 직접 선택하는 자율 매칭 방식을 적용해 1:1·소규모 심층 상담을 지원합니다. 커피챗·직무 소모임·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멘토-멘티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성장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기대효과

AS-IS

기술 숙련도는 높지만 신기술·기획·디지털 역량 교육이 부족해 경험과 지식이 개인에게만 축적되고 공유되지 않음.



TO-BE

세대 간 멘토링을 통해 노동자가 협업·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기업은 혁신 인재를 확보.

창원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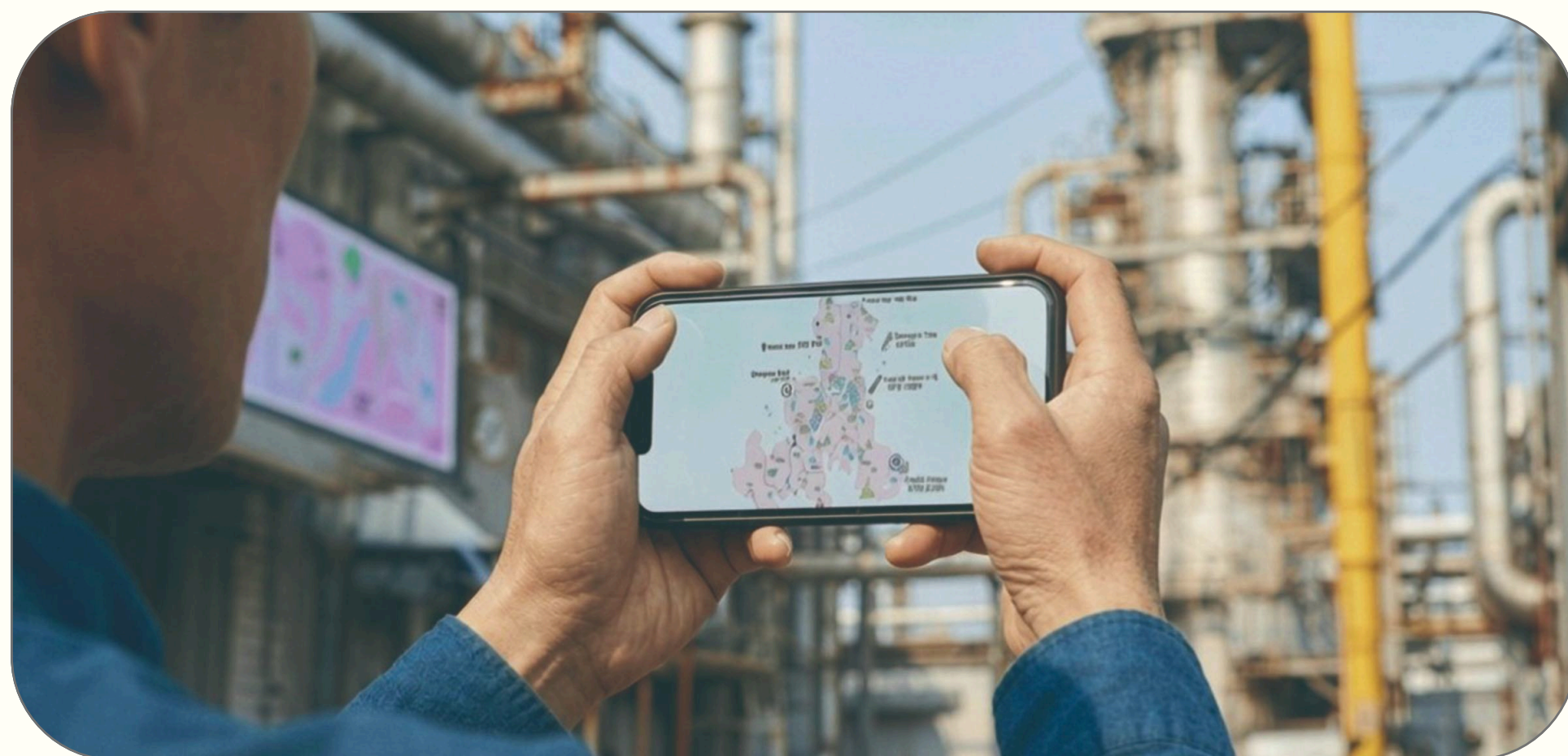
문화를 아카이빙하는 산단 문화지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
문화가 있는 산단을 체감하게 만드는
인터랙티브 지도 서비스

#산단스토리텔링아카이빙

#실시간문화지도

#산단의재발견



아이디어 요약

추진 배경과 목표

창원산단은 문화·여가 정보가 분산돼 접근성이 낮고, 산업시설 중심 이미지로 체류 매력도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된 문화·안전·생활 정보가 부족해 시민과 노동자가 일상에서 산단의 매력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시간 지도 기반으로 산단 정보를 통합 제공해 '문화가 있는 산단'을 만들고 생활밀착형 문화 탐색 경험을 확산합니다.

시나리오



창원국가산단은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저 공장으로 보이지만 살펴보면 스토리가 녹아있는 산단인 것을 알려주고 싶다.



가족과 주말에 산단에 특화된 문화지도를 통해 산단을 탐색해보려 한다.



산단 내 기업의 시그니처 조형물 등을 구경하며 인증샷을 남긴다.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굿즈 제작 팝업 체험을 통해 즐기고,



자녀와 찍은 사진을 산단 문화 지도에 업로드 하고 아카이브하며 추억을 모은다.



계속 새로운 팝업, 문화활동이 생길 때마다 지도에 업로드되며 문화가 지속적인 산단이 된다.

주요 내용

산단 내 문화 거점과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동 경로 기반 코스를 추천해 주는 인터랙티브 문화지도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낮·밤 모드 UI와 시민 참여형 UGC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문화 지도를 운영하며, 주요 지점의 QR·사이니지 연계를 통해 온·오프라인 통합 문화 경험을 지원합니다.

기대효과

AS-IS

산단이 폐쇄적·일 중심 공간으로 인식돼 시민 접근성이 낮고, 문화·안전 정보가 즉시 전달되지 않음.



TO-BE

실시간 정보로 산단을 낮엔 휴식·산책, 밤에는 안전하고 활력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산단 문화지도'로 전환.

창원산단

참여가 보상이 되는 리워드 적립 문화패스

나의 문화활동이 포인트가 되고, 포인트가
창원산단을 즐기는 문화혜택으로!

#참여가보상으로

#통합리워드앱

#산단문화패스



아이디어 요약

추진 배경과 목표

창원산단에는 문화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와 보상 체계가 부족해 참여가 일회성에 머물고 지속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 수요가 높은 콘텐츠와 연계된 혜택이 부재하고 기업 차원의 문화 지원도 부족해 문화 친화적 환경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문화활동을 포인트로 적립해 실질적 혜택으로 환원하고, 기업 참여까지 확대해 '참여가 보상이 되는' 선순환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나리오



가족과 함께 야구를 관람하고 싶지만 금액이 부담되기도 하고 가성비를 따지자니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문화산단형 문화 리워드를 통해 야구 경기 관람을 목표로 잡고 포인트를 모아 보려고 한다.



산단에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문화 활동들을 찾고,



신청하여 봉사, 체험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한다.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문화 활동을 포인트로 구매하여,



평소에 비용이 부담되었던 문화 활동을 포인트로 결제하여 사용하여 가족과 즐길 수 있다.

주요 내용

산단 노동자와 시민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문화패스 혜택으로 교환하는 '창원문화산단형 리워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스포츠 관람 등 선호도가 높은 보상을 강화하고, 산단 동아리 지원·가족 단위 혜택·생애주기별 프로그램·문화 이끌 기업 인증제도* 등을 연계해 참여 동기를 높입니다.

* 노동자의 문화활동 참여율이 높은 기업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기대효과

AS-IS

보상 체계와 기업 문화 지원이 부족해 참여가 일회성에 머물고 만족도가 낮은 상황.



TO-BE

포인트 적립과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참여를 지속시키고, 가족·기업 참여를 확대해 문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구조.

창원산단

맞춤형 홍보/소통 문화 큐레이션 허브

분산된 문화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시민의 관심사와 생활패턴에 맞춘 콘텐츠를 추천

#통합문화정보허브

#문화참여확대

#맞춤형큐레이션



아이디어 요약

추진 배경과 목표

산단 내 문화 정보가 노동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참여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취향·시간대에 맞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 문화 접근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 맞춤형으로 정보를 큐레이션하고 능동적으로 추천하는 스마트 문화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산단의 문화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시나리오



매번 5개의 웹페이지를 뒤지면서 찾은 문화활동을 가족과 함께 즐겼다면,



창원시의 모든 문화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취향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문화 MBTI 검사를 한다.



문화 MBTI를 반영한 맞춤형 큐레이션을 추천받으며,



이메일, 카카오톡 접근성이 높은 채널 알림을 제공받는다.



나의 취향과 가족의 취향이 반영되는 종합 플랫폼을 통해 주말이 문화생활도 가득 채워진다.

주요 내용

창원청년정보 플랫폼의 큐레이션 기능을 전반적으로 고도화하여 통합 문화 정보·캘린더·지도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들고, 개인화 추천과 알림 기능을 강화해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고 직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합니다.

기대효과

AS-IS

산단 노동자와 시민은 관심사에 맞는 정보를 찾기 어렵고, 문화혜택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인지도가 낮으며, 정보 전달 방식도 단순해 활용성이 떨어짐.



TO-BE

문화 정보가 통합 플랫폼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되어 누구나 쉽게 탐색·구독하고, 필요한 알림을 받아 놓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됨.

창원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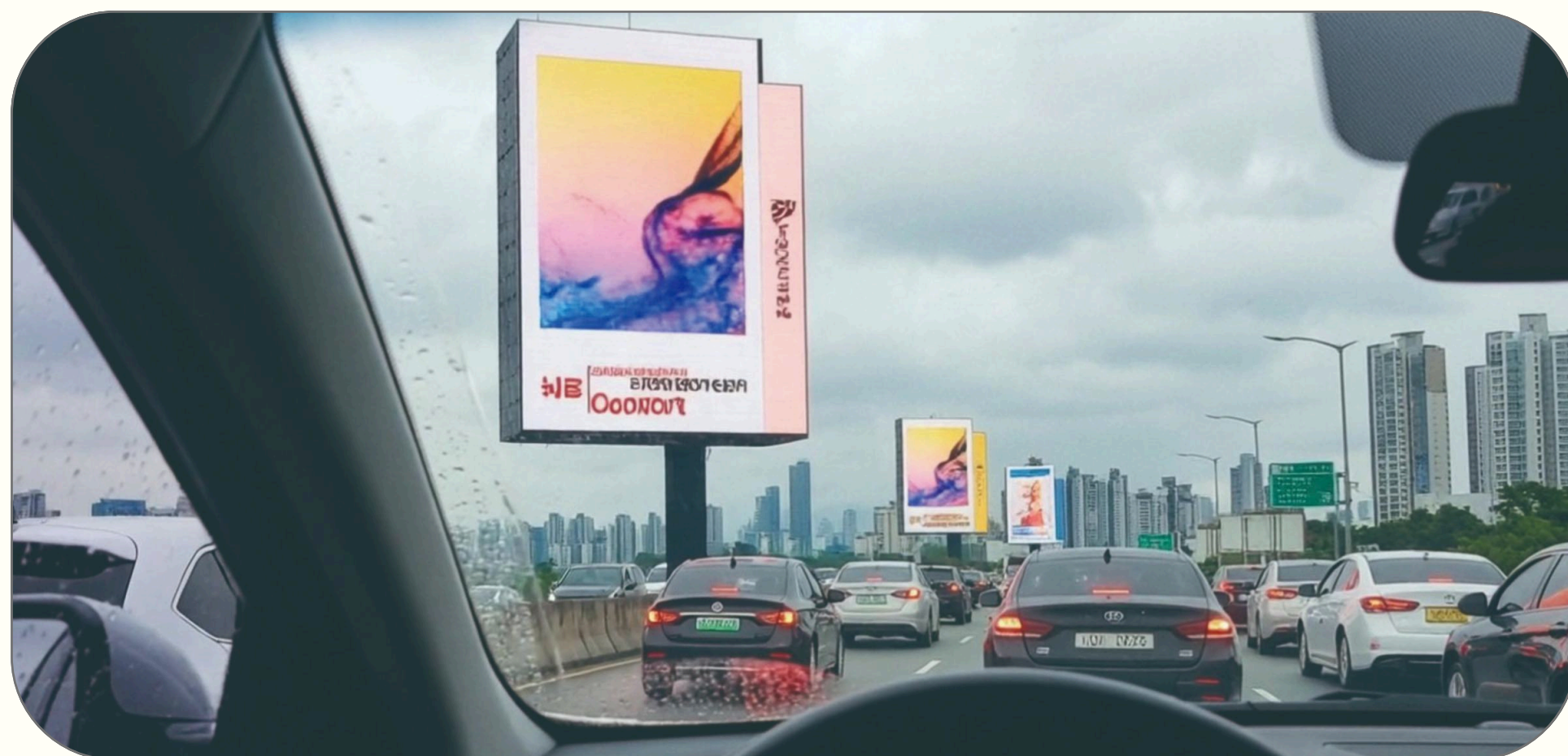
출퇴근길 문화활력 Culture Facade Project

산단의 지루한 경관과 일상을 깨우는 문화 전시장
+일상 참여소통+아카이빙플랫폼의 Wall로 전환

#디지털캔버스

#산단이미지전환

#출퇴근길미디어월



아이디어 요약

추진 배경과 목표

산단이 공장·도로 중심의 단조로운 경관으로 굳어져 일상 속 문화적 활력이 부족합니다. 산업 효율 위주의 환경 탓에 감성적 경험과 지속적 문화 향유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의 출퇴근 과정에서도 문화적 활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출퇴근길에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일상을 감성적으로 바꾸는 거리 갤러리형 공간과 참여·소통 기반의 문화 모먼트를 조성합니다.

시나리오



매번 똑같은 삭막한 출퇴근길과 딱딱한 공장에 들어가는 느낌에 답답하다.



답답한 순간, 신호 대기 중 차에서 올려다보니 창원 대로 옆에 미디어 월이 보인다.



미디어월에 '오늘 점심을 추천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뜬다. 잠시 고민하다 보니 신호가 바뀌고 다시 운전을 한다.



다시 신호 대기하니 미디어월에 문구가 뜬다, 문구 옆 QR을 찍고 오늘 점심 댓글을 올린다.



미디어월에 업로드된 메시지, 사진, 영상, 글귀 등 모든 콘텐츠는 '산단 문화 히스토리 아카이브'로 축적된다.



같이 출근하는 사람들의 점심 맛집도 알게 되고 서로 공감도 하다 보니 어느새 일터에 도착했다. 아침부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출근길이었다.

주요 내용

산단 대로에 리듬을 만드는 컬러 폴리 사이니지와 멈춰 서는 순간을 즐겁게 만드는 참여형 미디어월을 조성하고, 기록이 축적되는 산단 문화 아카이브로 일상의 문화 경험을 확장합니다.

기대효과

AS-IS

산단은 공장·도로 중심의 단조로운 풍경과 감성 요소 부족으로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며, 문화가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 활력이 낮음.



TO-BE

일상에 문화적 리듬과 감성을 더한 산단 거리를 조성해, 참여와 교류가 살아 있는 감성적 문화 모먼트를 만들어냄.



DESIGN LIVING LAB

주최: 산업통상부

주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수행: (주)에스큐브디자인랩



산업통상부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